

에콰도르, 대통령 축출과 향후 전망

□ 주요 경과

- '04. 11 '에' 의회, 지방선거 공공자금 유용혐의로 대통령 탄핵 시도
- '04. 12 '에'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자 반정부세력 대법원 판사 27명 면직 결정 (배후조정)
- '04. 12 '에'국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 반정부 시위 개시
- '05. 4. 15 '에'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 '05. 4. 16 '에' 대통령, 대법원 해산 및 비상사태 해제

□ '에' 의회, 대통령 축출 결정

- '에' 의회는 비상사태 선포 이후 대통령의 대법원 해산 및 시위강경진압 등을 위헌행위로 간주해 왔으며, 추가적인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정국안정을 기하기 위해 4월 20일(현지시간) 긴급 위원회를 개최, 소집 의원 62명(총 의원수 100명) 만장일치로 대통령 축출을 결정하고 알프레도 팔라시오 (Alfredo Palacio)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를 공식 발표.
- 의회의 이번 결정은 정식 탄핵절차가 아니며, "의회 결정으로 대통령직 포기를 권고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에 의한 것이며 군부도 의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있음.

□ 향후 전망

- 구띠에레스 대통령은 의회의 축출 결정 직후 인근 군부대로 대피한 상황이며, 현지 언론은 파나마 망명설 제기.

- 합참의장이 의회 결정을 인정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의회 결정 및 대통령 대피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나, 친 대통령 세력이 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고 있어, 당분간 에콰도르 정국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제공: 경협2실)

전문연구원 고 희 원 (☎3779-6686)
E-mail : koheewon@koreaexim.go.kr